

학술지 재인증평가를 통해 살펴본 미래 『산업연구』 발전방안

이현섭* · 김상현**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 재인증평가 관련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미래산업연구소』의 등재학술지인 『산업연구』의 현황과 향후 구체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는 크게 계속평가와 재인증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인증평가는 평가시기가 도래한 (우수)등재학술지 중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다. 『미래산업연구소』의 등재학술지인 『산업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계속평가를 통해 2021년도에 등재지로 최초 선정되었으며, 2024년에 재인증평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연구』가 등재학술지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향후 우수등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내용적인 측면에서 미래산업과 융·복합 관련 연구주제의 확대 및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전문성·다양성 강화가 필요하며, 형식적인 측면에서 학술지의 취지에 적합한 학술지 명칭의 변경과 논문초록 평가기준 추가를 통한 초록의 질적수준 향상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학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실무 및 현장 경험자, 연구원, 박사과정생 등의 논문투고 및 게재, 『미래산업연구소』 주최 학술대회의 확대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게재 확대, 해외 투고자 및 투고 지역의 확대, 논문게재물의 엄정한 관리 및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확보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주제어 : 산업연구, 학술지, 재인증평가, 미래산업연구소

* 제1저자,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 연구조교, leehs0521@dankook.ac.kr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kimsh@dankook.ac.kr

<논문 투고일> 2024.7.16 <논문 수정일> 2024.8.07 <게재 확정일> 2024.8.15

I. 서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인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진흥법」 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와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사업)에 따라 학술지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학술지평가(계속평가, 재인증평가)의 목적은 국내 학술지의 관리체계 확보를 통해 학술지의 질적 수준 유지, 연구자들의 연구경쟁력 제고 및 연구성과의 공유 활성화 및 국내 우수학술지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이다. 학술지평가는 크게 계속평가와 재인증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24년 학술지평가의 경우 계속평가는 평가시기가 도래한 등재후보학술지 중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하며, 재인증평가는 평가시기가 도래한 (우수)등재학술지 중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미래산업연구소』의 학술지인 『산업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계속평가를 통해 2021년도에 등재지로 최초 선정되었으며, 3년 뒤인 2024년에 재인증평가 대상이 되었다. 『산업연구』의 등재학술지 재인증평가의 평가단계는 1단계 신청자격 검토 및 체계평가, 2단계 내용평가, 3단계 종합심의로 진행되며, 재인증평가 결과 85점 이상이면 등재학술지로 유지되지만 85점 미만이면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1단계의 평가주체는 학술지 발행기관 자체검토·평가 및 재단 확인으로 이루어지며,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서를 바탕으로 항목별 상세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점수부여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2단계 내용평가의 평가주체는 전문평가단이며, 평가방법은 전문평가단 온라인 개별평가 그리고 평가자료는 내용평가 설명자료, 기관 규정 및 학술지 등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 종합심의의 평가주체는 학술지인증위원회이고 평가방법은 합의평가로 1~2단계 평가내용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본 연구는 『산업연구』의 등재학술지 재인증평가와 관련된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절차 및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로서 지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우수등재지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 등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I 장

서론과 Ⅱ장 학술지 재인증평가 개요로 구성되어 있으며, Ⅲ장에서 『산업연구』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IV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학술지 재인증평가 개요¹⁾

한국연구재단의 계속평가를 통해 2021년도에 등재학술지로 최초 선정된 『산업연구』는 2024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재인증평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산업연구』의 주요 연혁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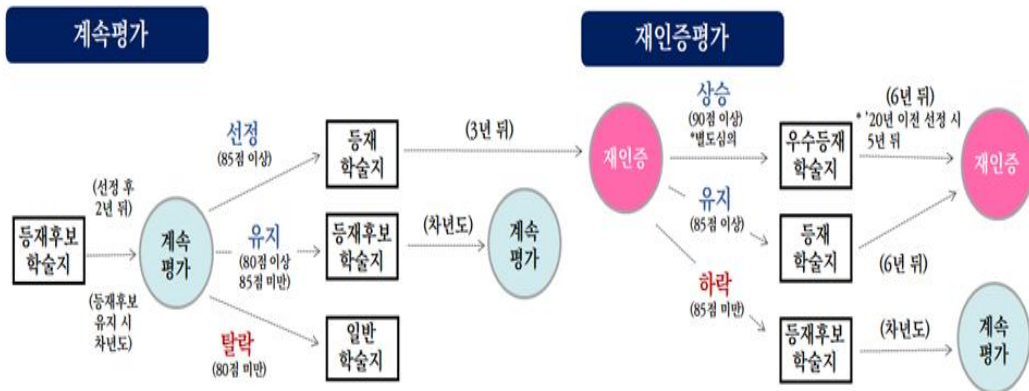
[표 1] 『산업연구』의 주요 연혁

연도	연혁
1963	『산업관리연구소』 설립(9월)
1978	『산업연구소』 명칭 변경
1979	『산업연구』 초판 발간
1997	『산업연구』 20권부터 논문형식 변경 (영문 ‘요약’을 논문 마지막에 수록함)
2002	연구소 운영 전반의 심의기구로 평의원회를 운영위원회로 개편
2003	『산업연구』 24권부터 논문형식 변경 (국문 ‘요약’을 웹사이트에 따로 수록함)
2006	『산업연구』 30권부터 논문형식 변경 (논문 첫 장에 목차를 없애고 대신 국문 ‘요약’을 수록함)
2010	『미래산업연구소로』 명칭 변경
2019	『산업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2021	『산업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2024	『산업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재인증평가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는 크게 계속평가와 재인증평가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학술지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1) 2024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재인증평가 신청요강(안), 한국연구재단, 2024.5.

[그림 1] 학술지 평가대상 및 평가체계²⁾



『산업연구』의 경우 2021년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로 2024년에 재인증 평가의 대상이다. 구체적인 등재학술지의 재인증평가대상 및 평가시기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재인증평가대상 및 평가시기³⁾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 (평가대상) 등재학술지로 선정 또는 유지된 학술지 ※ 2020년까지 진행된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는 2021년부터 재인증평가로 대체됨 ■ (평가주기) ▶ 등재후보학술지에서 계속평가를 통해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3년 뒤 등재학술지 재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인증평가를 통해 등재학술지를 유지한 경우에는 6년 후 등재학술지 재인증평가가 실시됨 ※ 2021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2024년에 재인증평가 실시 후 등재학술지 유지 시 2030년에 재인증 실시 ■ (평가대상 기간) 신청직전 3년분 ※ 2024년 재인증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은 2021~2023년임 ■ (재인증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주기) ▶ '23년에 재인증제도를 통해 등재학술지로 유지된 경우 6년 후 재인증평가 실시 ※ 2024년에 등재학술지로 유지된 경우 2030년에 재인증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대상 기간은 신청직전 3년분인 2027~2029년임

2) 2024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재인증평가 신청요강(안), 한국연구재단, 2024.5. p2.

3) 2024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재인증평가 신청요강(안), 한국연구재단, 2024.5. p4.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재인증평가의 평가단계는 1단계 신청자격 검토 및 체계평가, 2단계 내용평가, 3단계 종합심의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의 평가주체는 학술지 발행기관 자체검토·평가 및 재단 확인으로 이루어지며,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서를 바탕으로 항목별 상세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점수부여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단계 신청자격 검토 및 체계평가의 구체적인 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1단계 검토·평가항목 및 배점⁴⁾

[패널 A] 신청자격 검토(5개 항목, P/F)

구 분	항 목	P/F
신청자격 (P/F)	1. 발행의 규칙성 및 정시성	P/F
	2. 논문당 심사위원수	P/F
	3. 연구윤리	P/F
	4. 논문 투고 다양성	P/F
	5. 학술지 기본체계 구축	조건부 P/F
	상기 5개 항목을 모두 PASS해야 신청자격을 충족함	

[패널 B] 체계평가(3개 항목, 23점)

구 분	항 목	배 점	비 고
체계평가 (정량)	1. 연간 학술지 발간횟수	4	항목과락
	2.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 (KCI 등록 포함)	15	항목과락
	3. 인용지수	3	항목과락
	3개 항목	22	

주) 항목과락 : 1번, 2번, 3번 중 하나라도 0점일 경우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조치

신청자격은 학술지의 기본적인 체계 및 질적 수준 유지와 원활한 유통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자격은 점수제가 아닌 통과-미통과(PASS-FAIL) 적용한다. 신청자격 5개 항목을 모두 PASS해야 신청자격이 충족되어 평가가 가능하며, 단 한 개의 항목이라도 FAIL 시 ‘최종 신청자격 FAIL’

4) 2024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재인증평가 신청요강(안), 한국연구재단, 2024.5. pp13-14.

처리된다. 또한 신청자격 5개 항목 중 ‘학술지 기본체계 구축’에 한하여 신청자격 조건부 PASS-FAIL항목으로 운영되는데, 학술지 기본체계 구축 항목은 총 5개 세부요건으로 구성되고 이 중 4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항목을 PASS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신청자격 조건부 PASS-FAIL항목 중 미준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평가기간 내 개선 조치 시 해당 세부요건을 PASS한 것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신청자격 5개 항목과 학술지 기본체계 구축(조건부 P/F) 세부요건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1단계 신청자격⁵⁾

[패널 A] 신청자격 5개 항목

No	자격 항목	세부 요건	P/F
1	발행의 규칙성 및 정시성	■ 직전 3년간 매년 최소 1회 이상 발간했을 것 ■ 발행규정에 발행일이 명시되어 있을 것 ■ 발행규정에 명시된 발행횟수를 직전 3년간 준수했을 것 ※ 계속·재인증 평가 : KCI 등록 기준 ■ 직전 3년간 발행한 학술지의 규정상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 간 평균오차가 21일 미만일 것 ※ 계속·재인증 평가 : KCI 등록 기준	P/F
2	논문당 심사위원수	■ 논문당 심사위원이 최소 2명 이상일 것	P/F
3	연구윤리	■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을 것 ※ 계속·재인증 평가 : 신청 마감연도 기준 3년 전 제정 ■ 연구윤리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체 공개하고 있을 것	P/F
4	논문 투고 다양성	■ 전체 논문투고건(국외 포함) 중 동일한 기관의 논문투고건 비율이 2/5 이하일 것	P/F
5	학술지 기본체계 구축	■ 5개 세부요건으로 구성됨	조건부 P/F

☞ 상기 5개 자격 항목을 모두 PASS해야 신청자격이 충족되어 평가가 가능하며, 단 한 개의 항목이라도 FAIL 시 ‘최종 신청자격 FAIL’ 처리됨

5) 2024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재인증평가 신청요강(안), 한국연구재단, 2024.5. p7.

[패널 B] 학술지 기본체계 구축(조건부 P/F) 세부요건

세부 요건	P/F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발행기관(학회 및 기타기관, 대학부설연구소) 및 학술지 정보가 누락없이 등록되어 있을 것(발행간기, ISSN, eISSN 포함)	조건부 P/F
■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평가대상 개별 논문 원문 및 논문 정보(DOI, 공저자 정보, 논문명 및 저자명의 로마자, 게재논문의 투고(접수), 심사(수정), 게재확정일자 기재)가 누락없이 등록되어 있을 것	
■ 발행규정에 발행일이 연, 월, 일까지 모두 명시되어 있을 것	
■ 학술지 투고규정에 저작권 활용동의 절차 및 권한명세가 제시되어 있을 것	
■ 국립중앙도서관 학술지 저작권 안내 시스템(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 KJCI)에 저작권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것	
☞ 상기 5개 세부요건 중 4개 이상 충족한 경우 최종 PASS로 결정	
☞ 상기 세부요건 중 미준수 사항은 평가기간 내 개선 조치 시 PASS로 인정	

다음으로 2단계 내용평가의 평가주체는 전문평가단이며, 평가방법은 전문평가단 온라인 개별평가(학술지당 7명 내외) 그리고 평가자료는 내용평가 설명자료, 기관 규정 및 학술지 등이다. 또한 점수부여방식과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 5]와 같다. 2단계의 내용평가 만점(78점) 기준 70% 미만(54.6점 미만)이거나 과락적용 항목 중 하나라도 0점이 있을 경우에는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조치 된다.

[표 5] 2단계 내용평가⁶⁾

[패널 A] 점수부여방식 :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에 따른 구간 내 점수 부여

등급	A	B	C	D	E	F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100% 미만 ~ 90% 이상	배점의 90% 미만 ~ 80% 이상	배점의 80% 미만 ~ 70% 이상	배점의 70% 미만 ~ 60% 이상	배점의 0%

주) 평가등급별 배점은 각 평가항목 배점에 평가등급별 배점비율을 곱하여 산정

6) 2024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재인증평가 신청요강(안), 한국연구재단, 2024.5. p14.

[패널 B] 평가항목 및 배점 (6개 항목, 78점)

구 분	항 목	배 점	비 고
내용평가 (정성)	1.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20	
	2. 편집위원회의 전문성	18	
	3. 논문집의 구성과 체제의 완전성 및 가독성	10	
	4.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18	
	5.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5	
	6. 연구(출판)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7	항목과락
	6개 항목	78	배점과락

주) 배점과락 : 내용평가 만점(78점)의 70% 미만(54.6점 미만)일 경우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조치
주) 항목과락 : 6번 항목 관련 평가자료(내용평가 설명자료, 논문투고대상, 학술지 실태점검 결과 등)에 근거하여, 평가대상 학술지의 운영상에 해당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총점에 관계없이 탈락조치/등급취소 또는 차년도 학술지 실태점검 대상 포함 가능

마지막으로 3단계 종합심사의 평가주체는 학술지인증위원회이고 평가방법은 합의평가로 1~2단계 평가내용 검토 및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재인증평가 결과 85점 이상이면 등재학술지로 유지되고, 85점 미만이면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한다.

Ⅲ. 『산업연구』 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미래산업연구소』의 등재학술지인 『산업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로서 지속성을 유지하며 향후 우수등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인증평가 세부기준 중 1단계인 신청자격과 체계평가 부문의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내용부문에서는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재인증평가 세부기준의 2단계 내용부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측면의 개선방안

평가기준의 내용부문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20점)’이다.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항목은 평가대상 학술지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게재된 논문의 해당 학문분야에서의 학술적 가치 등에 대한 질적평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편집위원회가 학술지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항목이다. 평가대상 학술지와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를 동일 또는 유사분야의 등재학술지와 견주어 적합한지, 타당한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항목 평가기준⁷⁾

- 해당 학문분야(또는 유사분야) 여타 등재(후보)학술지와 비교하여, 해당 학술지 및 게재된 논문이 등재(후보)학술지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우수하고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가
- 해당 학문분야에서 중요하거나 필요한 주제의 논문인가
- 게재된 논문이 학술지의 주제범위에 부합되는가
- 편집위원회가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와 학문분야의 특성에 맞는 전문성, 정체성, 특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편집위원회 활동의 적극성 및 실효성 등)
- 기타 게재된 논문의 질에 대한 사항 등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 항목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미래산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등재학술지인 『산업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4차산업 혁명을 포함하여 다양한 융·복합 등 분야에 연구주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산업연구』에 게재되는 논문들은 이론적, 학술적 논의에만 주제를 한정하지 않고 융·복합 사회에 필요한 각 산업별 다양한 현안 쟁점과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국내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학술지의 학술적 가치와 주제 측면에서의 차별화 노력은 다음 [표 7]에 제시된 최근 3년간 게재된 논문의 산업분류 및 키워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7) 2024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재인증평가 신청요강(안), 한국연구재단, 2024.5. p43.

[표 기] 『산업연구』 게재논문의 산업분류 및 키워드(최근 3년)

발행연도(권호)	산업분류 및 키워드	발행연도(권호)	산업분류 및 키워드
2021년 4월 (45권 1호)	벤처기업, R&D 정책	2023년 4월 (47권 1호)	자본시장, 금융산업
	ESG, 기업재무		Human Resource Development
	금융혁신, LTV		중소기업, R&D 정책
	Asset Valuation		Corporate Governance
	첨단금융		Hi tech industry, R&D 정책
2021년 8월 (45권 2호)	중소기업, R&D 정책	2023년 8월 (47권 2호)	Corporate Governance
	Big data, Marketing		인공지능(AI), Chat GPT
	K-Beauty, International Marketing		금융산업, Risk Management
	조세정책		금융산업, Financial Data Analysis
	기업지배구조		금융산업, Fin-tech, Data Analysis
2021년 12월 (45권 3호)	Data Sufficiency, 금융혁신	2023년 8월 (47권 2호)	플랫폼 산업, platform business
	ESG		게임산업, 벤처기업, 투자이론
	핀테크		Big Data, Analysis
	건설산업		산업재해, 방재산업
	Human Resource Development		국제무역
2022년 4월 (46권 1호)	HR, 직무안정성	2023년 8월 (47권 2호)	ESG, Financial Analysis
	Fin-tech, 소비자이론		HRD, 공적개발원조
	금융산업(정보분석)		ESG, 금융산업
	Human Resource Development		자본시장, 미래산업
	SNS Marketing		

2022년 8월 (46권 2호)	금융산업, ESG	2023년 12월 (47권 3호)	Future Mobility, Edutech
	Big Data, Analysis		금융산업
	산업재해, 방재산업		고령화 대책, 디지털 정책
	Data Mining, Future Mobility		금융산업, Financial Data Analysis
	EduTech		
2022년 12월 (46권 3호)	Green Energy, 환경정책		ICT융복합, 양성평등정책
	디지털 포렌식		
	금융산업, Data Analysis		회계정보 분석, Data Analysis
	스타트업, 벤처기업 사례분석		
	인공지능, Applied Marketing		Cultural Industry
	Emotional Marketing		
	메타버스, 가상현실(VR), 항공산업		Big Data, Analysis
	발전산업, Uncertainty		
	소프트웨어 개발산업, Online conference		K-Culture, Leisure Industry
	HRD, 공적개발원조		

현재까지의 학술지 운영방안에 추가하여 향후 『산업연구』가 우수학술지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학술적 가치와 성과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다양한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융·복합을 다루는 학술지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학술지 명칭을 『미래 산업연구』 등 학술지의 취지에 보다 적합하게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진행되고 있는 각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리뷰(review) 논문을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각 산업분야에 대한 연구논문뿐만 아니라 실제 융·복합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포함되도록 실무적으로 유용한 사례연구 등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래

산업연구소』 인근에 위치한 판교 테크노밸리 등 융·복합 산업 관련 ICT 기업들과 연구 등 분야에서 협력수준을 적극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2 ‘편집위원회의 전문성’ 측면의 개선방안

평가기준의 내용부문 중 다음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편집위원회의 전문성(18점)’이다. ‘편집위원회의 전문성’ 항목은 편집위원(장)의 대외활동 및 학문적 역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학술지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편집위원회의 전문성 항목 평가기준⁸⁾

-
- 편집위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학술활동(학문적 성과 및 인지도 포함)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학술지의 편집위원에 적합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 편집위원의 학술활동이 활발하며, 학문적 성과가 높은가
 - 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 관련 규정에 편집위원장의 임기 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그 외 선임된 편집위원 구성이 적절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등
-

‘편집위원회의 전문성’ 항목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본 학술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융·복합 사회에 부응하는 연구를 위해 경제학, 경영학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편집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공계 분야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최근 융·복합 연구에 필요한 통계분야 전문가, 국제무역분야 전문가, 에너지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갖춘 편집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본 학술지 편집위원의 전문성은 다음 [표 9]에 제시된 현재 편집위원의 구체적인 연구분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편집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에서 융·복합 연구 관련 전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편집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학, 인공지능을

8) 2024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재인증평가 신청요강(안), 한국연구재단, 2024.5. p45.

위한 수학, 의학 혹은 생명공학 분야의 편집위원을 지속적으로 편집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다양한 융·복합 실무분야로 연구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표 9] 『산업연구』 편집위원의 개인 연구분야

구분	연구분야	구분	연구분야
편집위원장	ESG, 기업지배구조	편집위원7(국내)	인공지능, 빅데이터
편집위원1(국내)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편집위원8(국내)	녹색에너지, 녹색산업
편집위원2(국내)	R&D정책, 공적개발	편집위원9(국내)	핀테크, 소셜마케팅
편집위원3(국내)	기업지배구조, 스타트업	편집위원10(국내)	국제무역, 산업재해
편집위원4(국내)	금융혁신, 핀테크	편집위원11(해외)	R&D 정책, 인공지능
편집위원5(국내)	플랫폼 산업, 소셜마케팅	편집위원12(해외)	4차 산업혁명, 인적자원
편집위원6(국내)	인적자원, 에듀테크	편집위원13(해외)	스타트업, 기업지배구조

이와 함께 지역적인 측면에서 국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편집위원에 해외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추가하고, 해외의 경우에도 미국으로 편중되어 있는 편집위원을 유럽 및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직업분야 측면에서도 학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집위원에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 보다 다양한 현업 실무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측면의 개선방안

평가기준의 내용부문 중 다음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5점)’이다.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항목은 논문 초록이 논문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항목 평가기준⁹⁾

- 초록이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포괄적인 내용인가
- 초록이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어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 초록이 적절한 표현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 초록이 외국어(로마자 외 외국어 포함)로 제대로 표기되어 있는가
- 기타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 항목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본 학술지는 논문투고 시 초록1(원어)과 초록2(타언어) 평가항목을 심사지에 포함하도록 하여 초록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논문 초록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논문초록 평가기준을 논문심사 조항에 명확히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다음 [표 11]과 같이 초록1(원어), 초록2(타언어), 주제어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심사하는 명확한 논문초록 평가기준을 추가하여 초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표 11] 논문초록 평가기준

가독성	포괄성	적절성	간결성
논문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지	논문의 포괄적인 내용을 초록 내에 잘 서술하고 있는지	초록 내에 사용되는 단어 및 문장이 적절한지	논문의 핵심내용을 효과적으로 요약하고 있는지

특히 위 [표 11]에 제시된 논문초록 평가기준 중에서는 논문초록의 형식적인

9) 2024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재인증평가 신청요강(안), 한국연구재단, 2024.5. p52.

부분과 관련이 있는 ‘가독성’과 ‘간결성’ 부문이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독성’과 ‘간결성’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타 학술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미래산업(사회)에 대한 시사점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현행 논문초록 양식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4. 기타 개선방안

내용적인 측면에서 미래산업 또는 융·복합 관련 연구주제의 확대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전문성 및 다양성 강화, 형식적인 측면에서 논문초록 평가기준 추가를 통한 논문초록의 질적수준 향상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계뿐만 아니라 저변을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실무 및 현장 경험자, 연구원, 박사과정 학생 등 다양한 논문투고 및 게재 필요
- 『미래산업연구소』 주최 학술대회의 확대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게재 확대 필요
- 해외 투고자 및 투고 지역의 확대 필요
- 논문게재율의 엄정한 관리 필요
- 연구(출판)윤리 강화 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확보 필요 등

Ⅳ. 결 론

1. 요약

한국연구재단의 계속평가를 통해 2021년도에 등재지로 최초 선정된 『미래산업연구소』의 등재학술지인 『산업연구』는 2024년에 재인증평가 대상이다. 본 연구는 『산업연구』의 학술지 재인증평가 관련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산업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의 현황을 먼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연구』가 향후 등재학술지

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향후 우수등재지로까지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평가는 크게 계속평가와 재인증평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인증평가는 평가시기가 도래한 (우수)등재학술지 중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다. 재인증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단계는 크게 3단계 즉, 1단계 신청자격 검토 및 체계평가, 2단계 내용평가, 3단계 종합심의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산업연구』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산업과 융·복합 관련 연구주제의 확대 및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전문성·다양성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학술지의 취지에 적합한 학술지 명칭의 변경과 논문초록 평가기준 추가를 통한 초록의 질적수준 향상이 요구된다. 셋째, 학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실무 및 현장 경험자, 연구원, 박사과정생 등의 논문투고 및 게재와 『미래산업연구소』 주최 학술대회의 확대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게재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투고자 및 투고 지역의 확대와 논문게재물의 엄정한 관리 및 연구(출판)윤리 강화 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확보 노력 등이 요구된다.

2. 미래사회에 대한 시사점

본 연구는 등재학술지인 『산업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미래 우수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학술지 명칭을 『미래산업연구』 등 학술지의 취지에 보다 적합하게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융·복합을 다루는 학술지로서의 미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진행되고 있는 각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리뷰 논문을 정기적으로 간행하고 실제 융·복합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포함되도록 실무적으로 유용한 사례연구 등을 대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에도 독창적인 학술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미래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산업연구』는 향후 등재학술지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우수등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석영·황혜경, 2000. 산업기술분야 학술지 이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1(4), pp. 13-49.
- 양철원·야마다 아키히코석, 2017.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산업연구’
학술지 분석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찰-. 산업연구. 46(2), pp.
29-57.
- 오세희, 2012.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pp. 495-509.
- 윤희경·김신영, 2005. 학술지 영향계수와 연구업적 평가비중의 상관성
분석. 정보관리연구. 36(3), pp. 1-25.
- 이수상, 2019. 학술지 인용 네트워크의 중심성과 중개성 분석에 관한
연구 -KCI 등재 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pp. 77-100.
- 이수지·허유성, 2023. 챗GPT 기반의 미래교육 시대에 학습무기력
학습자의 유형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산업연구. 47(1),
pp. 193-219.
- 이재윤, 2020. 국내 학술지평가에서 인용지수 반영 방법의 개선방안.
정보관리학회지. 37(1), pp. 197-220.
- 조경원·우영운, 2019.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4차 산업 연구 동향 토픽
모델링.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3(7), pp. 764-770.
- 한국연구재단, 2024. 2024년도 학술지평가 계속평가/재인증평가
신청요강(안).
- Choi, D., 2023. Perspective Taking, Other-emotions Appraisal,
and Emotion Regulation on Creativity. *Journal of Industrial
Studies*. 47(1), pp. 47-70.
- Mongeon, P., and Paul-Hus, A., 2016. The Journal Coverage of
Web of Science and Scopus: a Comparative Analysis.
Scientometrics. 103, pp. 213-228.

Improvement plan for 『Journal of Industrial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academic journal recertification evaluation

Hyeonseop Lee* · Sanghun Kim**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Journal of Industrial Studies' through journal recertification evaluation. 'Journal of Industrial Studies' became a registered journal in 2021 through continuous evaluation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nd a recertification evaluation will be conducted in 2024.

Specifically, in order for 'Journal of Industrial Studies' develop into an excellent registered journal in the future,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needed.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research topics related to future industries/convergence and strengthen the expertise of editorial committee memb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level by adding abstract evaluation criteria and to change the name of the journal to suit the purpose of the journa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sure strictness in the submission of papers by researchers in various fields, expansion of academic conferences, expansion of overseas submission areas, and strengthening of publication rates and research/publication ethics.

Key word : Journal of Industrial Studies, Academic Journal, Recertification evaluation, Research Institute of Future Industry

* First author, Research assistant, The Research Institute of Future Industry, Dankook University, leehs0521@dankook.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Business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kimsh@dankook.ac.kr